불자 세상보기

대통령 사과서 진정성 찾을 수 없어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지난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지켜봐야 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벌써 여섯 번째다.

그는 회견문에서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 같은 대통령 사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친형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그야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작 4분짜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감으로써 국민을 우습게 대하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을 유야무야 적당하게 얼버무리고자 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회견 사실도 불과 35분 전에 통보됐고, 설상가상으로 이 시각에는 공중파 3사가 새누리당 경선후보 토론회 중계 관계로 정작 대통령 사과 모습은 뉴스전문 케이블방송인 YTN만 겨우 생중계 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가볍게 보이는 처신에 대해 거듭 실망만 했을 따름이다.

어쩌면 그는 회견문 행간에다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월급마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 내놓고 있는 자신의 청렴결백성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까지 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당황스런 담화문 발표는 형식면에서나 내용에서나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그저 평범한 소회의 말씀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무소불위 전횡과 국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경고음이 들린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친형에 대해서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동생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종일관 모른척하고 있었던 셈이 됐다. 혹시라도 '자신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라는 대통령의 자부심이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직의 포괄적 임무와 막중한 사명감을 철저하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혀 국민 감동없는 6번째 사과
발로참회 없으면 레임덕 가속
남은 임기 사명감 재인식 필요

대통령은 사적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개인의 총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그릇된 행위들의 반복은 결국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득 불교서 말하는 '참회(懺悔)'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게 된다. 아시다시피 '참회'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가운데 부처나 보살 앞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발원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 쯤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참회만 잘 해도 해탈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참회를 신행활동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개신교에서도 '회개(悔改)'라는 말이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참회'와 개신교에서 언급하는 '회개'가 종교적인 해석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개신교 장로인 이 대통령이 1천만 불자들의 바람인 진정한 '참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수준의 '회개'라도 한 뒤 새 각오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부대중 칼럼

영화, '두 개의 문'을 보고 나서

일감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스님들도 가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다. '아바타'가 한창 인기가 있다 해서 "대체 어떤 영화인가" 궁금해서 가봤고, 그 외에도 여러 영화를 봤지만 스님들이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대부분 불교적 소재의 영화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모시고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단체로 관람 하다시피 했다. 3년 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용산참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이다.

보통 영화 시작 전에는 약간의 조바심이나 설레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객석에 앉아 이 영화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은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시간이 무척 더디게 지나감을 느꼈다.

영화 내용은 간단하지만 구성은 촘촘하다. 영화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TV 영상물, 용산참사 유가족 변호인단의 인터뷰, 용산참사 범대위 활동가들, 용산 참사 사건을 보도한 방송 언론의 보도기사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육성으로 구성됐다.

영화로 넘어가자. 내용은 세상이 알고 있대로다. 일방적 철거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장기농성 할 준비를 한다. 농성 하루 만에 권력자들이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목숨 여섯이 희생된다.

하지만 영화가 들추는 속살은 여러 가지 다른 이면들이 존재한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에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고, 거기에 거짓 충성이라도 해야 하는 경찰간부, 그리고 표면에 보이진 않지만 거대한 개발업자들의 욕망을 앞세운 자본주의가 있었다.

자본주의 명령을 받은 권력자들은 힘없는 경찰들을 밀어붙여서 농성장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몽둥이를 들고 위, 아래로 토끼 몰이식으로 대부분 진압을 했다. 그러나 화염병을 보유하던 망루 위 농성자들은 계속 쏘아대는 물대포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름이 바닥에 흘러 넘치게 되고, 결국 화재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차치하고

어떤 이유든 폭력 사라져야
권력자, 농성자 죽음으로 몰아
영화 끝나고 차마 박수 못 쳐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여섯이나 불길에 휩싸여 죽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 바라진 않았겠지만, 문제해결을 저런 식으로 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예견 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살다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싸움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용산 참사뿐이 아니다. 이번 정부가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을 진압할 때도 그랬다. 무장이 해제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넘어졌고, 넘어진 사람들을 몽둥이로, 방패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보도됐다.

이 영화를 보면서 쌍용자동차서 쫓겨나 다른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보상은 고사하고 부채에 시달리다 목숨을 버린 22명의 희생자들이 생각났다. 또한 그들을 부여안고 통곡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 이들 모두 우리가 껴안아야 할 국민들이다.

용산 참사 현장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가르침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혹여 민초들이 깨어날까 봐 참회의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 빈터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급하다던 개발도 타산이 안 맞다며 안하고서 말이다.

영화는 끝났다. 잘 만든 영화이다. 하지만 박수를 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객석에서의 흐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社說

신재생에너지 사찰 도입 필요하다

한국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다.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사찰도 상황이 비슷하다. 도시가스를 포함해 기존 에너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기에, 전기와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다. 때문에 유가상승과 에너지소비 억제 차원의 전기요금 인상 등 사회적 요인은 사찰의 유지비용 가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7월 24일 발표된 연구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강원도의 한 사찰을 심층 조사한 이 연구 결론은 신재생에너지가 사찰 전기요금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 사찰의 심야전기료는 평균 9836만원 수준이다. 주변 나무연료를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로 난방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대략 5000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했다. 여기에 단열 보강을 했을 시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막대한 사찰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매스는 사찰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고 연구자는 설명한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불교가 말하는 생명존중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진다. 조계종도 2000년 초반부터 사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몇몇 사찰은 이런 에너지 체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찰 에너지 독립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누수되는 사찰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적어도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다.

템플스테이 국민 심성 교육할 좋은 기회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산이나 바다로 가는 휴가 대신 고즈넉한 사산체험 즉 템플스테이를 찾는이들이 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처음 도입했다. 시범운영 시 호응도가 좋았고 200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전국 100여개 사찰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산사만이 갖는 고즈넉함과 독특한 정서로, 항시 긴장 속에서 지내온 심신을 달래는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또한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체험할 수 있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요즘은 '송광사' '불국사' '법주사' '금산사' 등 각 사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템플스테이들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구미 도리사는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템플스테이 시행 10년을 맞은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종교색채를 벗어나 다양화 돼서인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수 참가하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전국민을 상대로 불교 및 심성 교육을 하는 셈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우리 불교문화를 전 국민에게 힘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템플스테이는 분명 우리 한국불교의 큰 자산이다.

템플스테이는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마음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에 딱 알맞은 힐링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심신 치유,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템플스테이가 계속해서 한 몫을 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풀이
[제❸권]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징의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전 3권 완간!
제❸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56쪽 / 정가 5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